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
고하기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결과로 전장을 밟고 나리의 경
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이
례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리마속도 창조열풍을 세자

검색광업련합기업소 금광광산 박래선영운동소대에서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 창조열
풍이 새롭게 뻗어지고 있는 속에
검색광업련합기업소 금광광산
박래선영운동소에서 뜻깊은 운
행장을 열었으며 1. 4분기 원
불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생된 풍기는 끝까지 푸르
히 광부들이 서로의 창조적지
혜를 함께 합리적인 천공방법을
만족하면서 매일 전투목표를

200% 이상 통과하며 힘차게 결
진하였다.

소대장 우승환동무는 어려운
작업조건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
에 많은 일을 하자고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절한 한을

받아들이는 5들이는 윤이에
소대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분발
하여 나름으로써 새해전투가 시작
될 날부터 광물생산에서 기적적
인 성과를 펼쳐 이룩하였다.

이곳 소대원들은 전투의 시작
부터 목표를 높이 내걸었다.

광명성장을 맞으며 1. 4분기

계획을 끝내고 해양질을 맞으
로 광물생산실적을 높여나갔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람전석탄탐사대 시추중대에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람
전석탄탐사대 시추중대 전투원

게 일으키며 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서
1. 4분기, 2월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서 강원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지난 2월 10일까지 알당거 완
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
였다.

사회주의 경제 강국건설의 중
요전선에 절실히 요구되는 서한
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자신들

이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깊
이 각각한 전투원들이 고교대는

때성장이 풍부한 기쁨과 만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축구장사업부

체육대를 통하여 힘차게 결

진하였다.

란사대당조직에서는 일군들
이 한교대의 밭과 들어온 모든

팜시대원들이 서로 듣고 이끌며

현장 기적과 혁신을 칭찬해나
도록 청입식정치사업부를 전파적
으로 벌리였다.

시추중대의 모든 전투원들은
이로운 성과를 높이 발휘하여 전
단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기획전에 빠져나온 시장에서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소대원들이 동시에 여러가지
체육장을 타고 앉아 1. 4분기 계
획을 광명성장을 맞아 풀내

며 많은 일을 하자고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절한 한을

다오교대를 통하여 일군들을

다음과 같이 풀내를 높여나가고
있다.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심고리로 풀어쉬고 생산조직을
2월 청입방생산계획을 111%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짜고 순결한 향기를 바쳐가며
는 전투를 벌리도록 하였다.

소대장 우승환동무는 어려운
작업조건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
에 정상화하기 위하여 압축공기
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수
준별로 세금을 확보하고 풍부한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6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제 63 호 [주제 제 25572 호] 주제 10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자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통양광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브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법원을

끌장을 볼 때까지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령을 충실히하는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돈산강의 대형화, 현대화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었다.

돈산강의 대형화, 현대화까지 완성해야 세계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었다.

끌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투쟁기풍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여 회의 참가자들의 헌경같은 열의에 의하여 돈산강의 대형화, 현대화는 당결정으로 제쳐졌다.

생각을 통해 돈산강 광부들과 동료들에 조직하여 두루에서 동시에 마주 글진을 하여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멀티한 조작사업이 진행되었다.

충청의 200일 전투진입과 함께 돈산강 대형화, 현대화공사가 본격화되었다.

당위원회는 대중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 불려

있으신 선전동종세를 드시게 벌려나갔다.

혁명사적교양실 활동을 정상

혁신적인 안목, 불같은 헌신으로

강남 요업 광장 초급당위원회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있다.

해당 단위 당책임인원들의 이직작성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경쟁적인 시대는 당정책관련의 제일기수인 일군과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남 요업 광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는 비약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새로워진 당일군들의 이직작성이 사업기풍을 느끼게 되었다.

지난 1월초 공장앞에 3개의 소성로와 설비들을 보수해야 할 문제에 제기되었을 때였다.

총동대로 보수작업을 진행한 다음 석달은 걸려야 했다.

이 문제를 놓고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많았다. 지금 공장이 맡고 있는 중요한 상건설에 필요한 벽돌생산 과제를 수행한 다음 보수를 진행하는 것은 의견도 있고 보수를 지연 시기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술실무일군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그러나 초급당위원장 김현룡同志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증산의 핵심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지난 3일 만경대 구역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증산의 핵심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를 위해 구역당위원회의 지

당 위원회

사업에서

빛나게 실현된다며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활선으로, 제 1 차적인 과업으로 확고히 브어쥐고 여기에 당시

의 회복을 집중하여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해내고 있는 통양광

산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

에는 본분을 한 점이 있다.

당 위원회는 어떠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써주면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

욱 깊이 들어갔다.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조직하여 그에

맞게 개조하여 둘러보내자는

발기...

당 위원회는 이미 한 발기가 즉

시 실천에 빠져지도록 대책을

청와대악녀의 가련한 외로리신세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이 가져다준 응당한 귀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시대에 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만고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중립한 사형선고를 맡고 판핵심판례에 오른 박근혜역도가 마지막을 물어쉬며 비참한 종말의 시각을 맞이하고 있다.

낮이면 낮에도 박근혜단체 핵성이 전지를 짐작하고 밤이면 빙대로 청의의 초불대화가 악의 소굴 청의대를 통해 삼계비밀 투서를 기세로 역도님을 향해 노도치고 있다.

여러 음을 쥐을 때 서로 위해 주고 마음상의지가 되어 주는 것은 인간생활에서 보편적인 일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것이라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와 같은 악녀에게는 이런 인간생활의 리치가 가능치 않다.

한국법판이리는 최후의 시각이 눈앞에 닥쳐 있으나 죽은들 편이 저거나 고 누구도 저를 보지 않는 외로리신세가 되어 가족이나 피피한 청와대 안방에 간간 박근혜년은 그야말로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3인방》이요, 《핵심실세》 요, 《박근혜의 너자》요 하던 총각개들은 모두 구속되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주변에 위로해줄 늘 하나 없는 형편이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피피한법제 한소와 특검의 조사방식에 출발을 모든 것을 《대통령》이 시켜서 한것이라고 박근혜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현제 청와대에 들어박혀있는 비서관이나, 참모니 하는 《시중군》들도 일신경을 쓰고 있으며 피피한법제를

마침까지는 초불루쟁 상황을 펼쳐미펴온 것으로 주시하면서 대책 회의니 워너 하는 것들을 벌써놓으며 보좌진총내를 놔둔다 하였지만 요즘은 그것마저 다 걸어치웠는가 하면 지어 수색비서관이라 늘들까지 직무를 대물하면서 박근혜가 해내는 즉시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있다.

그러다니나 역도년은 지난 2월초 생일때에는 《각국수오전》이라도 벌려놓으고 외로움을 팔려보느라 하였으나 위

여기에서 그처럼 혼신을 다 바쳐 섬겨온 미국산전마지 한번 재미를 보고 차버리는 거기리창녀 취급을 하고있으니 박근혜년의 정성은 그야말로 가枢하게 하고있다.

지금까지 민심의 버辱을 받은 피피한법제를 끌고 그 말로가 비참하지 않은 음이 없었지만 박근혜년처럼 외로리가 되어 미국적종족의 분분초초를 무서운 고혹속에 보낸 가련한자는 일찌기 없었다.

이런 사람값에도 못 가는 인간추불, 선하의 배치가 지금껏 철권의 자리에 끌고 앉았었다는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년의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는 절침 4년간 역도년이 지칠려온 천추에 유탄 폭발은 옷간 반인민적,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피행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다.

사기회갑으로 《대통령》감두를 뒤집어쓰자마자 애비의 《명예회복》을 떠들어대며 《유신》과 총독제를 베키고 민생을 도단에 빠뜨려 남조선을 사상 최악의 인간생지으로 전락시킨 것도 박근혜년이며 탄봉한국 모락소동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천하의 대결광년이다.

그가 누구는 박근혜의 전철을 밟는다면 역도년과 같은 비참한 운명이 차례지기마련이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박근혜는 어리는 빨리 들어낼수록 그 후원이 적은 법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역시 《정치적종립》을 운운하여 박근혜를 끌고는 품을 떨어져 감자에서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여기에게 그처럼 혼신을 다 바쳐 섬겨온 미국산전마지 한 번 꺼져낌없이 한 역도년의 사대미국죄악은 온 민족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역시에게 권력을 주면 택성이 불행해지고 민족이 고통을 겪는다는것이 박근혜년의 수치스러운 죄악의 행적이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민심은 천심이며 죄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대세에 여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치매질것은 역사와 민족의 죄악인 남조선이다.

박근혜는 렉네 피피통치배들을 종말이 가장 비참한 집권자, 피피정치자에게 한행당한 첫 《대통령》으로 끝인 죄악이 되었다.

그가 누구는 박근혜의 전철을 밟는다면 역도년과 같은 비참한 운명이 차례지기마련이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박근혜는 어리는 빨리 들어낼수록 그 후원이 적은 법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3일

평양

평화파괴자들의 위험천만한 도발

남조선피의들이 온 거제와 국제사회의 한걸같은 단회 규탄에 도불구하고 미 국과 함께 저 날 1일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광복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4월 말까지 무려 100대에 걸쳐 강행되는 이번 불장난소동에는 미국본토와 해외로부터 출전되는 미제제작군부역과 수십만의 피피군병력, 여러 주포국가병력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이 투입되어 미제항공포함기단과 대잠수함, 《본호 치자드》호를 비롯한 미제의 함선들과 《E-2 C》，《P-3 B》, 《스没钱》전투기 편대들이 등장된다. 이것은 이번 전쟁연습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지난해의 《기미 플로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월등히 끌고온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기동전개한 미제의 수많은 살인전략단들과 핵격수단들이 북침공격을 위한 출발점지에 기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번 연습에 미중군의 3대 핵심전략부기로 손꼽히는 《E-3 B》，《E-1 B》，《E-2 B》, 《핵전략》과 《독수리》를 포함한 미제의 핵전략군부역과 핵격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미제의 호전왕气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범죄적인 성격을 더욱 드러냈다.

남조선전역은 미제와 악합하여 밀리터리온은 합동군사연습은 물론이어서 미제의 악한 짐작을 험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도발》의 감률을 퍼뜨리고 밤중에 유포되었지만 그런 유치한 솔책은 통할수 없다.

외세와 악합한 피피호전왕들의 부문별한 복집전쟁단들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에 미제를 방불케 하고있다. 피성일은 전쟁미지방이들이 강행하는 불장난소동이 실전에로 번져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리에도 없다.

오늘의 사례는 우리가 적대세력의 악랄한 침략전쟁으로부터 차지하여 자위적핵역제력을 끌어들이고 강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막는 핵전쟁으로 유린하고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거칠수 있다. 돌아가는 행운중에는 도발이다.

피피호전왕들은 이번 연습이 《북의 미사일위협과 도발》에 대해 하기 위한 한계이라거나,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거나 하고 나방질하며 미제의 짐작을 강제로 하고있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3일

평양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악한 짐작을 강제로 조선반도에 대처하여 차지하여 자위적핵역제력을 끌어들이고 강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막는 핵전쟁으로 유린하고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거칠수 있다. 돌아가는 행운중에는 도발이다.

피피호전왕들은 이번 연습이 《북의 미사일위협과 도발》에 대해 하기 위한 한계이라거나,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거나 하고 나방질하며 미제의 짐작을 강제로 하고있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3일

평양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악한 짐작을 강제로 조선반도에 대처하여 차지하여 자위적핵역제력을 끌어들이고 강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막는 핵전쟁으로 유린하고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거칠수 있다. 돌아가는 행운중에는 도발이다.

피피호전왕들은 이번 연습이 《북의 미사일위협과 도발》에 대해 하기 위한 한계이라거나,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거나 하고 나방질하며 미제의 짐작을 강제로 하고있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3일

평양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악한 짐작을 강제로 조선반도에 대처하여 차지하여 자위적핵역제력을 끌어들이고 강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막는 핵전쟁으로 유린하고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거칠수 있다. 돌아가는 행운중에는 도발이다.

피피호전왕들은 이번 연습이 《북의 미사일위협과 도발》에 대해 하기 위한 한계이라거나,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거나 하고 나방질하며 미제의 짐작을 강제로 하고있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3일

평양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악한 짐작을 강제로 조선반도에 대처하여 차지하여 자위적핵역제력을 끌어들이고 강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막는 핵전쟁으로 유린하고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거칠수 있다. 돌아가는 행운중에는 도발이다.

피피호전왕들은 이번 연습이 《북의 미사일위협과 도발》에 대해 하기 위한 한계이라거나,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거나 하고 나방질하며 미제의 짐작을 강제로 하고있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3일

평양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악한 짐작을 강제로 조선반도에 대처하여 차지하여 자위적핵역제력을 끌어들이고 강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막는 핵전쟁으로 유린하고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거칠수 있다. 돌아가는 행운중에는 도발이다.

피피호전왕들은 이번 연습이 《북의 미사일위협과 도발》에 대해 하기 위한 한계이라거나,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거나 하고 나방질하며 미제의 짐작을 강제로 하고있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3일

평양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악한 짐작을 강제로 조선반도에 대처하여 차지하여 자위적핵역제력을 끌어들이고 강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막는 핵전쟁으로 유린하고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거칠수 있다. 돌아가는 행운중에는 도발이다.

피피호전왕들은 이번 연습이 《북의 미사일위협과 도발》에 대해 하기 위한 한계이라거나,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거나 하고 나방질하며 미제의 짐작을 강제로 하고있다.

무서운 고혹과 죽음의 망령이 때때히는 청와대의 어둠시즌하고 적막한 불빛에서 역도년의 청송맞은 푸성이 쳐やは라게 울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를 지지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근로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두정에 흥얼거리나서야 한다.

주제 106(2017)년 3월 3일

평양

남조선전역은 미제의 악한 짐작을 강제로 조선반도에 대처하여 차지하여 자위적핵역제력을 끌어들이고 강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막는 핵전쟁으로 유린하고 정세를

